

지역 소식통

완주창의교육 정책 사례 공유

전남 담양군이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완주의 창의교육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다.

13일 담양군과 담양군공동체지원센터 30여명은 교육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완주군의 완주창의교육 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앞서 방문단은 완주군과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지역 연계 중심 교육활동 성과와, 아동청소년 지원 과정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 담양군의 교육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완주군은 군의 창조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센터는 교육 활동의 중심이 되는 교육통합(공동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보건소, 청소년 영화치료 교육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 아동·청소년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관계자 교육 영화로 만나는 아동·청소년상담 레시피를 실시했다.

영화로 만나는 아동·청소년상담 레시피는 영화로 청소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의 전문적인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제지역의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학교전담경찰관등 다양한 분야의 아동·청소년 관계자들이 30여명 참여한 프로그램은 기본과정의 공개강좌를 거쳐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심화과정은 최근 심도 있게 진행됐다.

영화로 만나는 아동·청소년상담 레시피는 학교나 지역의 상담센터 등 아동·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실습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관계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광업·제조업 조사 진행

완주군이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진행한다.

1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을 둔 190개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사업체의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재고액, 유·무형자산 등 15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사업체가 희망할 경우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조사로도 참여 가능하다.

조사결과는 12월 말에 공표 될 예정으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국립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논의

완주군-민주당 도당, 새정부 대선공약 정책협의회 개최... 내년도 국가예산 방안 마련

완주군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더민주당 완주지역위원회가 완주군의 대통령 공약사업 방안과 국비 확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에서는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및 군정 주요 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안호영 완주·진안·무주·장수국회의원,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송지용 도의원을 비롯해 전북도당 및 완주지역위원회 관계자, 군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 방향이 구체화되고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완주군 대통령 공약사업 구체화 방안과 국가예산 3,000억 시대 개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구체적 사업은 690억 규모의 국립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



완주군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더민주당 완주지역위원회가 완주군의 대통령 공약사업 방안과 국비 확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이 밖에 △국립 사회경제적전문교육원 설립(550억) △만경강 수난구조 훈련센터 조성(400억) △대한민국 호국 체험센터 조성(480억) △전북 농식품 통합관리지원센터 설립(40억) 등 새 정부 정책방향과 같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박성일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로서 전북도당 및 안호영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새 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민생현안 해결에 완주가 앞장서겠다"며 "집권여당으로써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강력한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도농경제 성공모델 완주 정책 소개

박성일 완주군수, 도내 CEO 대상 특강 펼쳐

박성일 완주군수가 도내 CEO를 대상으로 'CEO의 리더십',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농도'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13일 박 군수는 전북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단에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두 번으로 나뉜 강좌에서 박 군수는 첫째 시간에 행정달인 박성일 군수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CEO의 리더십' 강의를, 둘째 시간에 완주군 정책의 성공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새만금 특별법, 세계소리축제, 동학농민혁명 등의 행정경험과 사례를 들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인가를 강조하며, 지난 33년의 공직경험을 전달했다.

박 군수는 "리더의 자세는 문제 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 제도개선의 결단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열 번 짝어 안 넘어 갈 나무 없다"는 마

음으로 문제해결과 갈등조정 능력을 겸비한 실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둘째 시간에서는 완주군의 로컬푸드가 2,500여 농가의 월급을 책임지는 효자사업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공모델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 자원봉사 등 전국 최고의 상을 수상한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어르신 복지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 군수는 "돈을 버는 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져야 비로소 행복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된다"며 "이청득심(以聽得心)이란 말처럼,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결정하며 듣는 자세로 행정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 게 최고의 가치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유간부 정책과정 명품특강 '행정달인의 리더십과 성공이야기'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CEO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펼쳤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축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

지평선축제의 성공 기원 국민 참여 위해 행사 개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 기원 및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D-100일을 앞두고 주행사무대인 백골제 광릉 통설무대에서 '축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축제기간 중 개최되는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의 전초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농경문화와 대표농주인 막걸리가 김제지평선축제를 이끌어갈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제전통기양주연 구회원을 비롯한 제전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순 농악단의 열띤 농악 시연, 개막식 공식 건배주 담그기, 성공기원 퍼포먼스, 전통주 시음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상 대규모 행사의 공식 건배주는 행사의 성격과 개최지역의 특성을 담은 지역 대표주류를 선정하여 민천주 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김제지평



김제시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 기원 및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D-100일을 앞두고 '축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선축제의 경우 대한민국 5년 연속 대표축제로서의 품격과 최대 국장지대에서 열리는 농경문화 축제임을 고려하여 김제 지평선에서 직접 생산된 쌀, 누룩, 물 등을 이용, 직접 담근 후 100일을 숙성하여 제19회 김제지평선 축제 개막식 리셉션에 공식 건배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이번 개막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시작으

로 김제지평선축제의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부터는 축제관계자, 시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남은 100일 동안 완벽한 축제장 조성,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기획, 범시민적인 손님맞이 등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국가예산사업 기제부 심의단계 대응방안 논의

김제시는 13일 이진식 시장 주재로 국소실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김제시 주요 국가예산사업에 대해 6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제부 심의단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지 축산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AI상습발생지역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이 농식품부에서 81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금명간 예타 통과가 유력시 되는 '새만금 수목원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28억원이 반영되어 기제부 심의시 증액과 더불어 삭감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각 부처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부처 일제출장 실시와 대선공약사업과 연계하여 각 부처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을 시

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기제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처와 기제부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미온적인 '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등은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국비 7억원을 확보한 김제육교 재가설사업은 2018년 국비 90억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비를 확장을 이끌어 낼 계획이며 금명 추경에 철거와 보상비로 4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선시화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처음으로 예산 7,000억원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의 지속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뿐만아니라 국가 사업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예산이 확정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19° 375ml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